



## 선거도 과학... 유권자 심리를 흔들어라

### ‘빅토리랩’ 사샤 아이센버그 지음

2012년 12월 19일,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건 대선 후보들만이 아니다. 후보 뒤에서 온갖 전략을 짜내는 캠프 관계자들은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후보 만큼이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각 후보 캠프들은 선거 당일, 부동표를 ‘내 표’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잠자는 표식’을 깨우고 목석 같은 유권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흔들며 ‘이기는 싸움’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술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거방법’을 놓고 밤새 고민중이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더하다. ‘빅토리랩’은 이런 선거 캠프의 숨은 이야기로 가득하다. ‘단 하루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수백만달러짜리 사업 꼭대기에 앉아 있는 후보와 그 캠프에 대한 이야기다. “정치도 과학”이라며 여론 조사에 담긴 의미를 뿔아내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자와 통계학자, 전략가들이 승리하기 위해 행동심리학으로 무장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유권자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특정 후보를 뺄도록 치밀하게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 냈는지

상세하게 담았다. 워싱턴포스트와 보스턴글로브 등 미국 유력지에서 정치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사샤 아이센버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후보 캠프가 동원하는 기술들, 설득 실험이나 유권자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 캠프에서 대중 교통 공간이야말로 유권자와 가장 밀착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캠프 데이터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영세기업이 주로 활용하던 버스 광고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성공을 거둔 사실을 소개한 점은 유권자 개별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타겟팅’(microtargeting)의 한 사례로 흥미롭게 읽힌다.

대선을 앞둔 시기, 각 후보 캠프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내놓는 다양한 선거 전략과 비교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예를 들면 2008년 통합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자들에게 권고한 ‘이기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민주당은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면 보수적, 일반주택이라면 진보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등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계층적·주거형태별 환경, 구도, 지역현안 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하고 유권자 성향, 경쟁후보의 조직 거점, 유권자 밀집장소, 지난 선거 득표결과 등을 담은 선거지도를 작성해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근 선거운동이 인드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저자 주장도 새롭게 다가온다. 정치인과 선거 캠프 전략가들이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 생각.

그는 프로그래머에서 “이제야 선거캠프는 이웃의 노크나 모르는 사람의 전화, 결심시 서지 않는 복잡한 마음 상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재는 법을 알게 됐다”면서 “선거 운동은 유권자를 다시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유권자를 ‘표’로 보는 게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과연 국내 대선 캠프도 유권자를 ‘이기기 위한 표’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을까. 유권자로서 꼼꼼하게 곱씹어볼 계기를 제공하는 책이기도 하다.

〈알에이치코리아·1만5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점점이 숨겨진 옛이야기 속살을 찾아

### ‘삶을 일깨우는 옛 이야기의 힘’

신동흔 지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선녀와 나무꾼’, ‘우렁각시’ 등 익숙한 설화 20여편에 담긴 깨달음을 신동흔 건국대 국문과 교수가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해설집이다.

‘삶을 일깨우는 옛 이야기의 힘’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오랜 세월 이어져온 옛 이야기에 얽힌 재미, 의미 등 속살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자의 삶과 연결,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간다.

예컨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설화를 통해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 아이가 셋이었다면 두 아이는 손에 끼고 한 아이는 품에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이고 넷이라면 등에 등에 매고라도 올라갔고 다섯, 여섯이라



면 두어명 남겨 놓고 떠났을 것’이라는 저자의 해석은 남자들에게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설마 자식을 돌이나 낳았는데 별 수 있겠어’,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누가 쥐’라는 게 남자들만의 착각이라는 게 저자 해석이다.

‘우렁각시’를 ‘지킴박사와 하이드’와 흡사하다며 풀어내는가 하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 나오는 호랑이를 ‘천사’와 ‘무서운 호랑이’의 양면성을 갖춘 영마로 해석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기 장수 설화를 소설 ‘태백산맥’과 바꾸지 않았다’고 서문에 쓴 저자 주장대로 충분히 재미있게 읽힌다.

〈우리교육·1만4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화려한 궁중회화 뒤에 숨겨졌던 화가들의 삶

### ‘왕의 화가들’

박정혜 외 지음

조선시대 왕의 얼굴을 그렸던 화가, 어진화사(御眞畫師)들은 누구이고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당시 삶은 어땠을까.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쓴 ‘왕의 화가들’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 일제 강점기까지 왕실의 회화 업무를 담당했던 ‘화가’들에 초점을 맞춰 궁중회화의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왕실문화총서’ 시리즈의 하나로, ‘왕과 국가의 회화’, ‘조선 궁궐의 그림’에 이어 왕실 미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 왕의 입장에서 조망한 궁중회화나 궁궐이라는 공간에 포커스를 대고 바라보는 게 아닌, 화가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게 특징



이다. 당시 궁중에서 화가들을 관장했던 도화서(圖書署) 화원(畫員)의 선발·교육 과정을 담은 ‘조선시대 화원과 궁중회화’, 화원 최고의 영예인 어진화사들에 대한 소개 및 작품 특징, 대우 등을 소개한 ‘왕의 초상을 그린 화가들’로 나눠 설명한다. 당대 최고 어진화사로 꼽혔던 조계걸, 윤상익, 진재해, 장경주 등의 기록도 함께 곁들였다.

아울러 갑오개혁으로 도화서가 폐지된 뒤 급변한 시대 상황에서 살아남은 화가들의 역동적 삶을 들여다보는 ‘제국의 황실화가들’, ‘좋은 징조’를 뜻하는 길상에 대한 화가들의 세계와 변화상을 살펴보는 ‘궁중회화에 담긴 길상의 세계’ 등도 살펴보고 있다. 풍부한 그림도 곁들여 읽기에 수월하다.

〈돌베개·3만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추사의 명호와 말미구에 주목한다

### ‘추사, 명호처럼 살다’

최준호 지음

343쪽. 최준호 도입 전남도 옥곡미술관이 분류해놓은 추사 김정희의 호 숫자다. ‘추사’(秋史), ‘완당’ 등 낯익은 명호(名號·사람이나 사물에 주어지는 성명)와 별호 등을 포함한 모든 칭호를 비롯, ‘현란’(玄蘭), ‘담판’(談判) 등 다양한 명호가 적혀 있다.

최 준호는 ‘추사, 명호처럼 살다’는 2005년부터 6년에 걸쳐 추사 작품에서 나타난 명호와 ‘말미구’(末尾句)를 13가지 유형으로 분석, 연구한 책이다. 말미구는 편지나 작품 마



지막에 위치하며 편지를 쓴 뒤, 또는 작품의 화제 등을 쓴 뒤 마지막으로 명호와 함께 각종 운을 덧붙여 갈무리하는 구절의 총칭이다.

저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추사의 명호와 말미구에 주목한다. 특히 말미구 ‘특’의 경우 추사가 처한 당시 상황에 ‘바위에 한뼘만 새겨넣는 듯한 정성으로 썼다’는 의미까지 엿볼 수 있어 추사의 재기발랄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미재·3만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결작 100여점에 얽힌 500년 뒷이야기

###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에르 코르넬트 드 생 시르 지음

미국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창사 158년만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보호 신청을 낸 2008년 9월 15일 영국 작가 데미언 허스트는 포틀랜드헤드 용액을 가득 채운 채수조 안에 들어간 ‘황금 송아지’를 경매시장에 냈다. 한화로 215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경매가에 낙찰된 것이 외에 이 경매는 미술 경매 시장에 대역명을 일으킨 사건으로 현재까지 평가받고 있다.

파리 팔레 드 도쿄 관장인 피에르



코르넬트 드 생 시르와 아들 아르노가 내놓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은 최고 경매가를 자랑하는 결작들을 한 데 모아놓은 가상 미술관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수치에 입각한 작품을 배열한 게 아니라 주요 컬렉션에서 뽑아놓은 15세기 고딕회화부터 21세기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100여점에 얽힌 500년간의 뒷이야기들을 압축해 담았다.

〈시공아트·2만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거짓말 한 남자, 한 여자의 독백... 씁쓸한 결말

### ‘너 없는 그 자리’

이혜경 지음

이혜경의 소설들은 독자들을 아릿하게 만든다. 불안한 세상에서 버티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잔히 들려주며 위로를 건넨다.

여느 작가들에 비해 느린 걸음을 걷는 이씨가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틈새’ 이후 6년만에 새로운 작품집 ‘너 없는 그 자리’를 펴냈다. 책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쓴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표제작 ‘너 없는 그 자리’는 갑작스레 아프리카 케냐로 직장을 옮겼다는 한 남자에게 전하는 한 여자의 독백이다. 여자를 떼어내 버리고 거짓말을 한 남자, 어느날 갑남 한복판에서 남자를 목격한 여자, 계속 이어



지는 여자의 독백은 씁쓸한 결말로 치닫는다. 책은 중년여성인 미혼인 여동생에게 전화로 시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려주는 ‘감히 린 핏’, 고졸 경리사원과 전도유망한 학원강사의 비밀연애를 소재로 한 ‘한갓되어 풀잎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 준 유일한 남자가 결국 자신의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해죽이 술바람을 만났을 때’ 등이 실려 있다.

이씨는 이화여자대학교·한대문학사·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신간

▲세익스피어 전집 13~23=세익스피어 사극 3번째 시리즈로, 대표작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폭풍우’ 등 5권과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등 7권이 1.2차분으로 출간되며 이어 ‘십팔년’, ‘존왕’, ‘헨리 8세’까지 잉글랜드 왕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장미전쟁, 백년전쟁을 그려낸 3차분 11권이다. 향후 ‘줄리어스 시저’ 등 그리스 로마 사극과 희극·소네트도 잇따라 출간된다. 〈아침이슬·각권 1만1000원〉

▲아테네의 변명=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선 지 한 달 뒤 사약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소크라테스 죽음과 아테네 문명에 관한 오해 등 역사를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식민지 전쟁을 펼친 아테네와 그 아래서 신음했던 민주 시민들의 삶 등 아테네 생활상이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다. 〈옥당·2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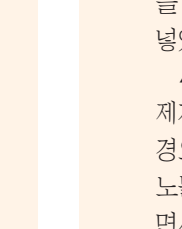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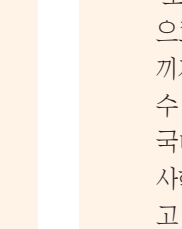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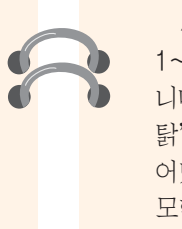
▲벵파이어 러브스토리 3부작=크리스토퍼 무어의 시리즈물로, ‘흡혈광 녀석들’, ‘너, 재수 없어’, ‘날 깨워줘’ 등 3부로 나눠 구성돼 있다. 출간시기(1995년~2010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한꺼번에 봐야 직성이 풀리는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토미 플러드와 어느날 갑자기 뱀파이어가 된 조디 스트라우드가 만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도시판타지물. 〈알에이치코리아·각권 1만3500원〉



▲인플루엔자=소설가 한상운이 ‘좀비’를 모티브로 해 내놓은 세계말 판타지 소설. 강남 한복판 특급호텔 옥상에서 군 복무중인 21살 제훈을 비롯, 폐쇄공간을 탈출하려는 주인공들과 좀비들간의 사투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극적 재미에 반전의 쾌감도 빠뜨리지 않아 책장 넘기는 속도가 빠르다. 좀비를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돌·1만2000원〉

▲세 PD의 미식기행, 목포=전·현직 방송사 PD 3명이 근현대사 목적이 살아 숨쉬는 목포의 맛 기행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목포를 맛보다’ ‘별미를 맛보다’ ‘그리움을 맛보다’ 등으로 나눠 목포를 구성적 서술해다 본다. 저자가 목포의 대표 음식으로 꼽는 ‘귀족 물고기’ 민어, 흥어, 낙지 요리를 비롯해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든 콩물과 팔죽, 여기에 역사가 담긴 백반, 꼬리곰탕까지 푸짐하게 담아내고 있다. 〈부키·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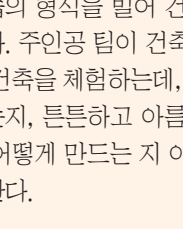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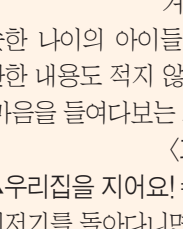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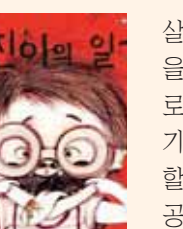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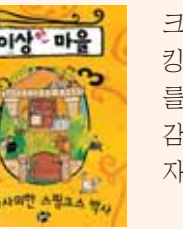
▲잡설=대한불교 조계종 ‘자성파쇄신결사 추진본부’ 화형위원장인 지리산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성공회대 교수인 김민웅 목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총무 김인국 신부가 한자리에 모여 나온 ‘잡설’(雜說)을 묶은 책.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경제, 자살,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꽃타기·1만3000원〉



▲마당을 나온 암탉 1~3=2011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을 3권짜리 만화로 엮어냈다. ‘잇씩의 웅감한 모험’, ‘다르면 뭐 어때’, ‘초목이, 하늘을 날다’ 등으로 동화나 영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 국내 산과 들, 호수를 답사한 뒤 연필로 스케치하고 수채화로 채색한 공간을 만화 속 배경으로 집어 넣었다. 〈사계절·각권 1만2000원〉

▲대장간 골목=체코 국민 작가 바츨라프 르제차치의 장편 동화. 체코 프라하 뒷골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정의와 평등,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목직한 주제’를 유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눈감지 말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이상한 마을 3-4=마가렛 라이언의 창작 동화로 주인공 조니가 이상 마을에서 신문 배달 일을 하며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간다. ‘불가사의한 스핑



크스 박사’, ‘미스터리한 킹 아주머니’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용기와 자신감,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꿈터·각권 1만원〉

▲우진이의 일기=여섯 살 우진이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림 일기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할 시기의 또래 아이들이 공감할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수긍할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그만큼 아이들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도 제공한다. 〈피린자전거·1만1000원〉

▲우리집을 지어요=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익히는 체험 학습의 형식을 빌어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주인공 팀이 건축이란 삼촌의 허락을 받아 건축을 체험하는데, 집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위한 설계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꿈교·2만2000원〉

## 어린이 책꽂이